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루게 제24938호】 주체104(2015)년 6월 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 리재일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이곳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정하고 계시면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주신 성스러운 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전하는 가장의깊은 교양거점으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사적지종업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1,770여㎡의 혁명사적관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최고사령부지휘처, 최고사령부 작전국구역, 총참모부구락부, 삼석인민학교를 비롯한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물, 혁명사적터들이 력사주의원칙에서 원상 그대로 더욱 훌륭히 꾸려졌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러짐으로써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자라나는 세 세대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신 곳 등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하나하나의 사적물들과 사적터들, 사적나무들은 전회의 나날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며 그들과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고도 겸손하게 생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 품모, 그 어떤 최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령장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관을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훌륭히 건설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적문헌들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였으며 사적자료들도 잘 전시하였다고, 특히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사적관을 꾸리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공로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법, 령군술을 익히신 귀중한 사적물들도 주의깊게 보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공부하신 삼석인민학교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시였다.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덧집을 의운 최고사령부지휘처를 바라보시면서 최고사령부지휘처에는 조국해방전쟁사적기를 대표하는 력사적인 건물이므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덧집건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도덕의리,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가 뜨겁게 깃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지휘처, 혁명사적비, 총참모부구락부를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감동깊이 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집무실벽에 뚫린 기총탄자리와 최고사령부지휘처에서 얼마 안되는 돈덕에 박혀있는 불발탄을 보시고 수령님처럼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명도한 사실은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밖으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부셔야 하시였고 안으로는

우리 혁명을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던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의 음모를 걸음마다 짓뭇개버려야 하는 비밀없는 전쟁을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작전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 나라의 최고사령관이 리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경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곳, 공화국영웅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국보답게 정말 잘 꾸리였다고, 사적지지가 종합적인 교양거점으로 완벽하게 꾸러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에게 길이 전하며 전세대들이 이룩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떨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만방에 다시금 파시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령도업적을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게 깊이 체득시키는 위대성교양장소이며 대를 두고 전해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명도력, 천리혜안의 지략과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투쟁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명도하시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령도자가 응축된 전승의 성지인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한 해당 부문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통한 참관사업을 짜고 들어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응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이동강의를 활발히 벌리는 문제, 조국해방전쟁사적지와 관련된 특화점집들과 화첩들을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문제 등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앞으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일군들과 강사들,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총정, 숭고한 도덕의리로 세계를 진감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세세년년 더욱더 찬연히 빛날것이라는 확신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실시에 대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주제104(2015)년 7월 19일에 실시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104(2015)년 6월 8일 평양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배민사회주의당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배민사회주의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배민사회주의당 지도부성원들과 준공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배민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의 자주적명화통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하여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선언발표후 조선반도에 펼쳐졌던 경이적인 현실은 온 민족이 단합될 때 조선의 통일 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6.15통일시대의 사면들을 소개하였다.

부위원장 아그바호프 주스뎡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선군정치적 사회주의기본정치방

식으로 정립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명도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위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군대가 선군혁명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군대와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 조선로동당의 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변혁과 기적들이

본사기자

위대한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가자

원산육아원, 애육원에서 쫓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이 원산육아원, 애육원에서 8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한상준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원산육아원, 애육원 일군들과 쫓기모임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해놓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며 행복의

세 요람에 보급자리를 펴게 될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부요없는 아이들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웅변적으로 파시하는 내용과 자랑할만 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며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운영을 잘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 천만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아버지사랑으로 원아들을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꿈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며 애국심과 올바른 도덕성, 창의성,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어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어 있는 건물과 시설, 비품들을 알뜰히 애호관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원아들을 혁명의 대를 꽃피워 이어나갈 민중적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워나감으로써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자!

기술적 지도에서 중시한 염피해막이 작전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받들고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농업전선의 담당자답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기술적요구대로 세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자면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생산조직과 기술적지도에 실정에 맞게 앞세워야 한다. 이것을 명실한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염피해막이대책을 과학적방법에 세워나갔다.

염도가 높은 물을 리용하는 조건에서 목표이삭이수율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게 한 사실을 분고보자.

일반적으로 물의 염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벼의 뿌리활성이 낮아져 가지기기가 일정하게 억제된다. 따라서 평탄 이삭이수구가 계획보다 훨씬 적어져 정보당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확고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기후변화에 따르는 농업생산조건을 제때에 파악한 일군들은 즉시 모든 농장에서서 평탄 포기수를 이미 계획했던것보다 20~30%정도 더 높이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특히 예비묘를 심하게 키우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달린 평탄 포기수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내기일을 일정계획대로 중단없이 내밀면서도 목표이삭이수율을 정확히 확보할수 있는 첫 돌파구를 열이 높았다.

그런데 제일 큰 난관이 막아나섰다. 그것은 염도가 높은 물을 어떻게 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때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때 대한 당의 요구를 새겨안고 물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올해의 지속되는 가뭄과 관련하여 저수지물대신 이 물로 관개용수를 보충하게 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모내기일을 앞두고 예견치 않게 물의 염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저수지물이 들어올 때까지 모내는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

기되었다. 이 의견을 따르던 대부분의 논밭에서 큰모와 영양단지로의 의한 소식배방법을 받아들인 조건에서 모내기일을 보충할수 없었다. 그 같이 제한된 저수지보다 그리 믿음직한 담보로는 되지 못하였던것이다.

시일에 맡겨진 알곡생산과제를 국가의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며 방도를 찾아나갔다. 사무실문을 닫아내고 농장들에 내려가 밭이 뚫어놓은 포진들을 밟아보면서 오랜 농사경험을 가진 농업근로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바다를 건널 땀, 군데에까지 찾아가 간직해온 농사의 농사경험을 듣는 과정에 물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염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모내기작업을 보장하면서도 모의 초기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는 과학적방법을 찾아낸 일군들은 즉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우선 모든 농장에서 이 물을 지속적으로 맹수 있는 포진들에서 모내기일을 먼저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저수지물이 보충될 때 역량을 총집중하여 끝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물로 모내기를 한 포진들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일군들이 모내기에 못지 않게 중시한 문제가 있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병해충피해가 없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겨울과 봄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다. 그리고 가뭄포진에 물을 충분히 내지 못했기때문에 벼그루터기에서 겨울나이를 한 해충들이 불췌히 많이 발생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모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여기에 설치하였지만 이 나비등은 빛색기가 높기때문에 그 개수를 줄여도 되였다.

더우기 좋은 점은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것이였다. 바다가에 위치하고있는 이 농장에 때없이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쉽게 꺼지곤 하였다. 그렇지만 이 나비등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

뿐만아니라 별레잡이효과가 대단히 높았다. 한개의 나비등으로 하루만에 많은 별레를 잡을수 있었던것이다. 이 나비등은 전원을 투입하면 전등이 켜지는것과 동시에 그루에 있는 쇠살장에 놓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의 평간격을 종전과 달리 정하고 모를 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친 일꾼들을 갖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자면 당의 뜻대로 과학농법을 농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관리위원장은 지난해 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제1작업반의 농사경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한 작업반의 일부 포진이 다른 포진보다 정보당 알곡수확고와 1이상 높았던것이다.

그는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따져보았다. 지난해 시기 작업반에서는 평간격을 각각 20cm,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30cm로 엮이면서 벼모를 내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일정하게 나타내 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20cm간격에서는 통풍과 빛받이 조건이 그리 시원치 않았다.

결과 같은 포기안에서도 여분물과 내린물량이 서로 차이났다. 대체로 30cm간격으로 향한 논밭의 이삭들이 더 잘 여분되고 수확량도 높았다. 이런데로부터 작업반조급일군들은 포기사이 거리를 줄이고 평간격을 모두 30cm로 정하였다. 가을의 결실은 좋았다. 칠달무게와 여분물이 높아졌다. 그것은 벼모의 평간격이 모두 균일한데로부러 통풍과 빛받이조건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빛합성조건이 좋아져 농작물의 맨 아래 잎에서도 영양상태를 오래동안 유지할수 있었으며 뿌리활성도 높아질수 있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배방법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나비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모내기가 끝난 즉시 포진에 축진기를 리용한 나비등을 설치하도록 한것이다. 이 나비등의 효과가 높다는것은 지난해에 이미 확증되었다.

우선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것이였다. 이전에 리용하던 나비등은 하루에 정보당 수십개의 기름을 소비하곤 하였다. 결국 농장을 절약하면서도 병해충을 없앨수 있게 되였다.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한정보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만드는데도 힘이 얼마 들지 않는다. 축진기, 전등,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일정한 규격의 쇠살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이런 나비등을 수십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때 끝나는 즉시 설치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현실은 당의 뜻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을 안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황 철 민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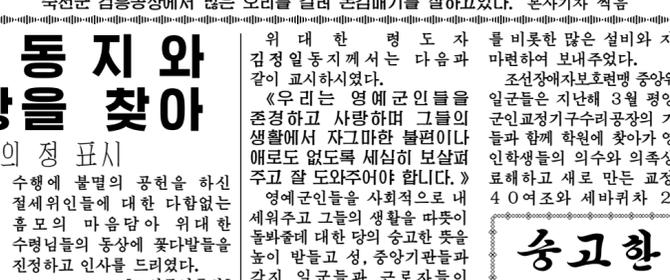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나비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모내기가 끝난 즉시 포진에 축진기를 리용한 나비등을 설치하도록 한것이다. 이 나비등의 효과가 높다는것은 지난해에 이미 확증되었다.

우선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것이였다. 이전에 리용하던 나비등은 하루에 정보당 수십개의 기름을 소비하곤 하였다. 결국 농장을 절약하면서도 병해충을 없앨수 있게 되였다.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한정보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만드는데도 힘이 얼마 들지 않는다. 축진기, 전등,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일정한 규격의 쇠살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이런 나비등을 수십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때 끝나는 즉시 설치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현실은 당의 뜻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을 안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황 철 민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나비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모내기가 끝난 즉시 포진에 축진기를 리용한 나비등을 설치하도록 한것이다. 이 나비등의 효과가 높다는것은 지난해에 이미 확증되었다.

우선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것이였다. 이전에 리용하던 나비등은 하루에 정보당 수십개의 기름을 소비하곤 하였다. 결국 농장을 절약하면서도 병해충을 없앨수 있게 되였다.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한정보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만드는데도 힘이 얼마 들지 않는다. 축진기, 전등,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일정한 규격의 쇠살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이런 나비등을 수십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때 끝나는 즉시 설치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현실은 당의 뜻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을 안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황 철 민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나비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모내기가 끝난 즉시 포진에 축진기를 리용한 나비등을 설치하도록 한것이다. 이 나비등의 효과가 높다는것은 지난해에 이미 확증되었다.

우선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것이였다. 이전에 리용하던 나비등은 하루에 정보당 수십개의 기름을 소비하곤 하였다. 결국 농장을 절약하면서도 병해충을 없앨수 있게 되였다.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한정보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만드는데도 힘이 얼마 들지 않는다. 축진기, 전등,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일정한 규격의 쇠살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이런 나비등을 수십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때 끝나는 즉시 설치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현실은 당의 뜻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을 안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황 철 민

벼모평간격을 달리 정한 까닭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이러한 조직사업은 웅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보장하는것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찾은 교훈을 갈수록 결실은 새로와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포진들에서 벼모의 평간격을 30cm로 정하고 모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그들은 제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또한 분조마다 모 줄을 충분히 마련하고 매 모 줄마다 30cm간격으로 눈금표식을 정확히 해놓았다.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나비가 끝나는 차례로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모내기가 끝난 즉시 포진에 축진기를 리용한 나비등을 설치하도록 한것이다. 이 나비등의 효과가 높다는것은 지난해에 이미 확증되었다.

우선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것이였다. 이전에 리용하던 나비등은 하루에 정보당 수십개의 기름을 소비하곤 하였다. 결국 농장을 절약하면서도 병해충을 없앨수 있게 되였다.

기름을 쓰는 나비등은 한정보에

효과높은 나비등을 제작설치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

만드는데도 힘이 얼마 들지 않는다. 축진기, 전등,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일정한 규격의 쇠살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이런 나비등을 수십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때 끝나는 즉시 설치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의 현실은 당의 뜻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을 안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황 철 민

